

< 한국산업인력공단 -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>

‘외국인노동자 입국지원 업무협약’ 체결

- 17개 송출국 현지 및 대한민국 입국 직후 마약류 범죄 대응 교육 및 홍보
- 건전한 입국문화 조성 및 국가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전개

한국산업인력공단(이사장 이병훈, 이하 ‘공단’)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(세관장 김정)과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(인천 영종구)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안전한 입국 지원과 마약류 범죄 대응 및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양 기관은 △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△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△세관 신고절차, 통관 관련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△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.

한편, 공단은 2004년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서비스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, 외국인노동자(E-9)의 입국을 지원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이병훈 이사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는 공항에서부터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”라며, “공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력 도입 사업을 안전하게 지원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도입부	책임자	부장	김유미 (052-714-8561)
		담당자	과장	우상우 (052-714-8564)